

中國飲食文化的 內在的 意味 研究*

李海元**

<목 차>

1. 머리말
2. 中國飲食과 禮儀와의 관계
3. 中國飲食과 政治와의 관계
4. 中國飲食과 文藝創作과의 관계
5. 맺음말

1. 머리말

과거 중국음식에 대한 연구는 실생활의 중국요리의 제조방법에 관한 요리 책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중국음식이 어떤 문화적 맥락에 놓여 있는가를 살핀 논문과 책이 출간되기도 하였다.¹⁾ 국외 연구는 주로 일본과 미국의 중국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高麗大學校 人文大學 中國學部 教授, hhaewonn@korea.ac.kr

1) 박은경의 “중국음식의 역사적 의미” (한국문화인류학회편, 《한국문화인류학》, 제24집, 1994)과 김광익의 “상상이 경쟁하는 공간: 한국에서의 중국음식”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1998)이 있다. 이 두 논문은 한국에서의 중국음식이 지닌 문화적 상징을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특히 한국의 화교를 연구한 학자의 중국음식이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음식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단행본으로는 이재영의 《중국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지영사, 1999)는 중국인에 대한 연구로 중국인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책이다. 그 가운데 衣食住의 틀을 이용하고 있지만 고대와 근대가 혼합하여 전개되는 각론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고 중국 음식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주영하의 《중국, 중국인, 중국음식》 (책세상, 2000)은 중국의 음식문화를 우리가 지닌 중국음식에 대한 편견 오류를 고쳐주고 중국 음식문화의 의미 그리고 현대 중국의 음식의 현실적인 상황을 잘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의도한 중국 음식문화의 상징 의미가 문고판이라는 지면의 제약으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음식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²⁾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에서 출판된 관련 서적의 번역은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중국 음식문화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중국문화사에 일부분 피상적인 언급이나 소개에 그친 상태이며 특히 중국문학과 중국 음식문화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나 더 나아가서 깊이 있는 연구가 전무한 것이 학계의 실정이다.

중국의 음식문화 가운데 酒文化의 내재적인 의미를 독특한 안목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논문으로는 魯迅의 〈魏晉風度及文章與藥及酒之關係〉³⁾와 王璠의 〈文人與酒〉⁴⁾가 있다.

에 관한 전문서가 전무한 우리나라의 출판 현실에서 그나마 중요한 중국음식의 문화적 의미와 상징을 밝히려는 의도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 2) 일본의 일본식품사 대가인 시노다 오사무(篠田 統)의 《中國食物史》(동경, 紫田書店, 1974)는 군인의 신분으로 중국 북방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을 기초로 명나라 이전의 음식관련 문헌을 통한 중국음식 소개를 하고, 청나라 때는 계층별 음식풍속과 世時풍속과 관련된 음식을 소개하고 있어 음식의 역사를 통해 중국인의 삶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영양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하여 《중국음식문화사》(민음사, 1995)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미국에서는 K. C. Chang(ed.), Food in Chinese Culture(New York: The Vail-Ballou Press, 1977)가 있다. 하버드 대학 중국 고고학의 대가인 張光直 교수가 9명의 학자와 함께 중국음식 역사에 대해 인류학과 역사학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이다. 중국문화에서 음식은 다른 문화요소와 상호 관련된 복합체이며 중국인의 관념, 종교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중국문화에서의 음식문화의 중요한 위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 3) 竹內好 譯註, 한무희 옮김, 《魯迅文集IV》, 〈魏晉의 기풍 및 문장과 약 및 술의 관계〉, 99쪽-117쪽. 漢末 魏初에서부터 도연명까지의 문인들의 당시 시대상황과 神仙 服藥과 음주와의 관계를 논하였다. 조조가 정권을 잡고 통치의 방침으로 두 가지를 거론하면서 刑名과 通達을 중시하여 문장의 자유로운 문학자들의 시대로 파악한 사실에 주목하였고 조조의 금주령에 공용이 반대하여 음주 예찬을 하였고, 이후 정시문인 하안의 空談을 애호하고 五石散을 복용한 뒤에 술을 마셨고, 죽림칠현은 술을 주로 마셨는데 대표문인인 嵇康과 阮籍의 차이점을 거론하였으며, 劉伶은 〈酒德頌〉을 지어 음주를 예찬하였고, 阮籍은 〈大人先生傳〉에서 세상의 일체는 허무이기 때문에 술에 탐닉한 것이라고 하였다. 도연명에 대한 음주 행위를 분석하면서 단지 그를 전원시인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述酒〉에서처럼 당시의 정치를 논한 것에 주의하여 도연명이 세상사를 잊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냉담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신은 도연명이 이러한 정치 참여와 은거의 모순의 갈등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본 것이다.
- 4) 《中古文學史論》, 《中古文人生活》, 〈文人與酒〉, 44쪽-76쪽(臺北: 長安出版社). 죽림칠현에서부터 문인과 술과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그들의 음주행위는 생명에 대한 애착과 죽음에의 공포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술을 현실 초월의 수단으로 보았으며 술을 통해 자연과의 일체를 추구하고 현실을 도피하여 목숨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완적의 경우는 술에 도취하여 다른 사람을 피하는 수단으로 삼아 효과를 보았는데 이것은 정치압박과 남과의 분쟁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구실이지만 내심의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였다는 사실을 반

중국의 飲食은 飮과 食 두 方面을 포함한다. 飮은 茶와 酒을 가리키며, 食은 중국요리를 말한다. 중국인의 음식은 생명의 유지를 기본으로 물질적인 향유와 정신수양의 보장을 강조한다. 중국인의 물질생활 속에 정신적인 내용이 침투되어 독특한 음식문화를 형성하였다.

중국고전과 중국문학작품 가운데 중국음식을 언급한 부분은 수없이 많아 중국 음식문화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록들은 중국 음식사의 귀중한 역사 가치가 높으며 중국의 음식과 중국의 고전이나 문학작품 그리고 중국 문화와의 깊은 관계를 고찰할 수 있다. 《周禮》·《禮記》·《儀禮》에는 제사에 바치는 음식의 禮義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천자는 음식과 술을 하늘에 바치고 그 음식과 술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먹게 하였다. 이것은 천자가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아 정치를 하였으며 그래서 음식으로부터 정치가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禮記》〈禮運〉 편에 예의 시초는 음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술과 음식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중국음식과 예의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춘추시대 齊桓公은 易牙라는 요리사를 총애하였고, 《周禮》〈天官冢宰〉에 보면 주 왕실을 위한 황실음식 관련 기관이 22곳, 관직이 208명, 음식 조리 종사자만도 2124인이라고 하였다. 제사와 정치를 주관하는 천자의 음식은 그만큼 중요하였고 음식이 곧 정치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음식의 내재적인 의미와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司馬遷의 《史記》에는 ‘鴻門宴’으로 대표되는 중국음식과 정치와의 상호관계를 살필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며 〈殷本紀〉에는 商나라 湯王 때 伊尹은 요리 이론가였으며 음식 조리방법과 통치 방법을 연관지어 天子의 王道정치를 주도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음식과 정치와의 깊은 관계를 알 수 있다.

증한다고 하였다. 도연명의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다분히 완적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인 포부가 강했던 그가 좌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술에 탐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다만 그가 이전의 문인들과 다른 점은 술과 시를 일치시켰다고 주장한다. 다량의 시속에 술을 묘사한 시인은 도연명뿐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문단에서 음주량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世說新語》(특히 〈任誕〉 편)와 같은 소설과 《晉書》와 같은 역사서, 《莊子》나 《列子》 등의 고증을 거쳐 술과 음주와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어 본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지만 연구범위가 워진 시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대의 범위를 더 넓혀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음식은 중국문인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 문학과 예술 창작과 술의 밀접한 관계는 작품의 제재와 창작 촉매작용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역대 시, 소설과 희곡, 산문 등에 수많은 작품은 술을 제재로 삼았다. 이런 작품 가운데 曹操의 〈短歌行〉, 陶淵明의 〈飲酒〉, 李白의 〈將進酒〉·〈月下獨酌〉, 宋詞 가운데 蘇軾의 〈水調歌頭〉(“明月幾時有”), 李清照의 〈如夢令〉(“昨夜雨疏風聚”), 辛棄疾의 〈破陣子〉(“醉裏挑燈看劍”) 등은 飲酒詩의 名作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은 음주 후에 창작되어졌다. 〈蘭亭序〉를 쓴 천하제일의 서예가 王羲之나 草書의 大家 張旭도 음주 후에 일필휘지하였다. 蘇軾의 〈和陶淵明飲酒〉와 杜甫의 〈飲中八仙歌〉 등의 기록에 보면 술이 문인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여 문학 창작에 촉매역할을 하였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중국 음식문화의 내재적 의미 연구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첫째, 중국의 음식문화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등급의 서열제도 확립의 필요성으로 유가적 도덕 윤리적 개념으로서의 禮義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둘째, 중국 음식문화와 중국정치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중국의 음식과 중국문학 창작과의 관계를 세 가지 방면에서 고찰한다.

2. 中國飲食과 禮義와의 관계

《禮記》 〈禮運〉 편에 “禮의 시초는 모든 음식에서 비롯되었다”⁵⁾고 하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악기를 두드리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신에게 음식을 바쳤다고 하였다. 《大戴禮記》 〈禮三本〉 에 음식의 근본을 귀하게 여겼던 기록이 보인다. 종족의 선조에게 5년에 한 번 제사를 올리는 큰제사인 大饗의 禮를 행하는 의식에 대해서 술을 담은 제기인 玄尊을 먼저 바치고 生魚를 음식을 담은 俎에 바치며 간을 맞추지 않은 고기의즙인 大羹을 먼저 올렸다고 하였다.⁶⁾ 이 두 기록은 음식과

5) 夫禮之初，始諸飲食。孔穎達疏，《禮記注疏》，《十三經注疏》，416쪽.

6) 大饗尚玄尊，俎生魚，先大羹，貴飲食之本也。朴良淑 解釋，《大戴禮》，41쪽.

제사의 禮를 행하는 의식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禮記》 〈禮運〉 편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굽고 끓이고 삶아서 먹게 되고, 단술과 젓술 등의 음료도 마시게 되었다” 7)고 하여 당시에 술이 주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飲食男女’ 라는 것은 사람의 큰 욕심이 머무는 곳이다” 8)라고 하여 ‘음식남녀’란 먹고 마시는 본능적인 인간의 욕구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에는 인간의 세상사가 모두 담겨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인의 음식과 술이 차지하는 위치는 남다르다. 중국인의 술과 음식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술과 음식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물이었다. 《尚書》 〈酒誥〉에 주나라 周公이 논한 술에 관한 가르침이 보인다. “제사 때만 술을 써야 한다. 하늘은 명을 내리시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오직 큰 제사 때만 쓰도록 하셨다” 9) 이러한 기록과 《禮記》 〈禮運〉 편에 “祭禮에서 澄酒는 마루 아래에 놓는다. 희생을 벌려놓고 祭器를 갖추고 거문고·비파·관악기·경·종·북 등 각종 악기를 놓고 祝嘏를 연주하여 천상의 신과 선조의 영혼이 降神하게 한다” 10)는 기록을 보면 음식과 술을 매개로 제사를 통해 인간은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술과 음식은 禮義의 실천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禮記》 〈禮運〉 편에서 술과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행위를 통해서 “군신의 도리를 바르게 하고 부자의 정을 두텁게 하며 형제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상하의 차례를 정립할 수 있으며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다” 11)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제사를 통해 예를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임금 이전의 세상은 천하가 온 세상 사람들 공동의 것이라는 ‘天下爲公’의 大同社會였다. 葛洪의 《抱朴子》 〈外編〉 〈詰鮑〉 편에 “태고 시절에는 임금도 신하도 없었고” “영달이란 것도 없었으며” “권세욕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을

7) 以炮以燔, 以亨以炙, 以爲醴醕. 주5), 417쪽.

8) 飲食男女, 人之大欲存焉. 주5), 431쪽.

9) 祀茲酒, 惟天降命肇我民, 惟元祀. 孔穎達疏, 《尚書注疏》, 《十三經注疏》, 207쪽.

10) 澄酒在下, 陳其犧牲, 備其鼎俎, 列其琴瑟管磬鐘鼓, 脩其祝嘏, 以降上神, 與其先祖. 주5), 417쪽.

11) 以正君臣, 以篤父子, 以育兄弟, 以齊上下, 夫婦有所. 주5), 417쪽.

마음에 두지 않아” “먹고 싶은 것을 먹으니 즐겁고 배를 두드리며 노닌다” 12)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다. 禹의 아들 啓가 夏나라를 건립한 후에 ‘天下爲公’은 ‘天下爲家’로 변하여 통치자가 “대도는 없어지고 사람들은 친하를 각자의 집안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각기 그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여기고, 각기 그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며, 재물과 힘을 자기를 위하여 감추고 사용한다” 13)라고 하였고 그래서 “예의를 기강으로 삼아 군주와 신하의 분수를 바로잡았다” 14)고 하였다. 또한 “禹王·湯王·文王·武王·成王·周公은 이 禮를 써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하였다” 15)고 하여 禮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16)라고 하였다. 이런 小康社會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禮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는 사람에게 있어 술에 누룩이 필요한 것과 같이 중요하다” 17)고 하였다.

《左傳》〈隱公〉 11년에 周나라의 “禮는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고, 사직을 안정하게 하는 것이며, 백성들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이다” 18)라고 하였다. 〈昭公〉 26년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백성들은 함부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으며, 농민들은 토지를 떠나지 않고, 상공업자들은 하는 일을 바꾸지 않으며, 士는 道를 벗어나지 않으며, 관리가 태만하지 않으며, 大夫는 국가의 이익을 자신이 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19) 禮의 규범 작용이 은나라 때보다 더 구체화되었지만 이러한 규범은 춘추시대 정치 가운데에 점차 상실되었다.

孔子도 克己復禮를 주장하며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20)고 하였다.

12) 昔原台 講註, 《포박자》외편3, 185-186쪽. 부분 인용.

13) 今大道既隱, 天下爲家, 各親其親, 各子其子, 貨力爲己. 주5), 413쪽.

14) 禮義以爲紀, 以正君臣. 주5), 413쪽.

15) 禹湯文武成王周公, 由此其選也. 주5), 413쪽.

16) 禮者, 君之大柄也. 주5), 422쪽.

17) 禮之於人也, 猶酒之有蘖. 주5), 439쪽.

18) 禮經國家, 定社稷, 序民人, 利後嗣者也. 文旋奎 譯著, 《春秋左氏傳》(上), 87쪽.

19) 民不遷, 農不移, 工賈不變, 士不濫, 官不滔, 大夫不收公利. 주18), (下), 278쪽.

20) 《論語》〈顏淵〉,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邢昺疏, 《論語注疏》, 《十三經注疏》, 106쪽.

예가 점차적으로 윤리 도덕의 범주에 속하게 되면서 일종의 절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전국시대 荀子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신분에 알맞은 예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예가 나라를 흥하게 하는 요인이며 개인도 예를 통해 올바른 자신의 인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 임금이 예의를 제정하여 사람들의 신분을 정하고 각자 욕망을 충족시켜주었다고 하면서 예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생겨난 법도이고, 사람들의 요구가 충족되려면 사회적 신분의 분별이 필요하고 그 신분에 알맞게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²¹⁾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예의를 갖춘 절제가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를 가리킨다.

사회적 신분과 예의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는 술과 음식을 차린 제사의식에서 드러나는데 중국음식과 禮義와의 관계는 유가의 엄격한 서열관념으로 나타난다. 다섯 등급 公·侯·伯·子·男 가운데 公이 大夫에게 食禮를 행하는 禮에 대한 《儀禮》 〈公食大夫禮〉는 천자와 사대부의 연회의 규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 연회의 자리 배치와 음식 배치의 동작 등 아주 복잡하고 번잡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公이 식례를 베풀기 위해 빈을 사당 안으로 맞이하여 들이는 예의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보면 “公이 賓과 마찬가지로 朝服을 입고 대문 안에서 빈을 맞이한다. 대부가 公의 명에 따라 빈을 안내하여 안으로 들어온다. 빈이 문을 들어와 서쪽에 서 있다. 公이 두 번 절을 하면 빈이 피한 다음 두 번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다. 公이 두 손을 맞잡아 예를 행한 후에 안으로 들어가면, 빈이 그 뒤를 따라 公의 선왕의 사당 문에 이른다”²²⁾고 기록하였다. 公과 빈 그리고 대부의 지위 등급의 서열에 따라 예를 행하는 순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식례를 위해 동방에 두었던 세발솥 鼎 등의 기물과 물고기 등의 음식을 뜯 안으로 가지고 나와 차려 놓는 과정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보면, “大夫들이 나이 순서에 따라 세의 동남쪽에 서서 손을 씻는데, 서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위쪽으로 하여 나이 순서에 따라 손을 씻는다. 손을 씻고 물러가는 사람과 손을 씻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세의 남쪽에서 서로 교대한다”²³⁾고 하여 음식을 차리

21) 김학주 옮김, 《순자》, 533-535쪽.

22) 吳江原 講註, 《儀禮》(3), 956쪽.

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과정도 나이 순서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을 삶아 익힌 물고기를 차려놓는 것도 아주 세밀하고 엄격하다. “물고기는 일곱 마리로 하는데, 쑤 위에 종으로 놓는다. 물고기의 등지느러미 부위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한다.腸과 胃의 七할 정도는 동일한 쑤 위에 올려놓는다. 비늘이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옆구리 살을 七할 정도로 한다. 장과 위와 옆구리 살 모두 쑤 위에 횡으로 놓는데, 양쪽이 아래로 드리워지게 한다” 24)고 하였다. 쑤는 저민 고기나 물고기를 고여 놓는 받침대를 말하는데 禮器로 사용되고 鼎과 한 세트를 이루는 특징이 있는데,《周禮》〈天官冢宰〉「膳夫」에 보면 “왕이 희생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데 12개의 鼎을 쓰고 희생물은 모두 쑤에 고여 놓는다” 25)고 하였다.

공자의 음식관은《論語》〈鄉黨〉편에 잘 나타나 있다. 楊氏가 말하길 “성인의 도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6)고 하였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음식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인인 공자의 음식의 예에 대해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 “술은 일정한 양이 없었지만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 27)고 하여 음식의 도가 있어야 하고 음주에 예를 지켰음을 알 수 있다. 또 “임금이 음식을 주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르게 하여 먼저 맛을 보았다” 28)고 하여 음식의 일상생활에 질서가 있음을 말한다.

중국음식과 예의와의 관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밀접하다는 사실은 역대 통치자의 술에 대한 태도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은나라 紂王이 “술로 연뿔을 만들고, 뽕뽕하게 들어찬 나무들처럼 고기를 매달아놓고서 별거벗은 남녀들이 그 안에서 서로 쫓아다니게 하면서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며 놀았다” 29)고 하였는데,《戰國策》〈魏策〉에 “옛날에 帝女가 儀狄에게 술을 빚게 했더니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禹에게 바친즉 우는 마셔보고 맛이 좋았으므로 의적을 멀리하여 美酒

23) 주22), 963쪽.

24) 주22), 963-964쪽.

25) 池載熙·李俊寧 解譯,《周禮》,53쪽.

26) 朱熹,《論語集註》,“聖人之所謂道者,不離乎日用之間也”,《經書》,249쪽.

27) 割不正,不食.唯酒無量,不及亂. 주26), 257-258쪽.

28) 君賜食,必正席先嘗之. 주26), 260쪽.

29) 司馬遷,《史記》〈殷本紀〉. 丁範鎮 外 옮김,《史記 本紀》,64쪽.

를 꿔고, ‘후세에 반드시 술로써 그 나라를 망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0)라고 하였다.

주나라의 제왕들은 이러한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경고하였는데 周公이 成王을 대신하여 위나라 제후로 봉해질 때 康叔에게 은나라 백성들이 주왕의 영향으로 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술의 해악을 들어 훈계하길, “작고 큰 나라들이 망하게 되는 것도 역시 모두 술로써 죄를 짓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³¹⁾ 또한 주공은 술이 망국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교훈 삼아 제후와 관리에게 훈시하길 “노인들과 임금에게 크게 음식을 마련해 올리고 나서, 그때에야 음식을 배불리 먹고 술을 취하도록 마셔도 되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풍성한 음식을 바쳐 제사를 지낼 수 있어야 그대들은 스스로 안락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진실로 왕의 관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늘이 큰 덕을 따라, 임금 집안을 망치지 않게 될 것이요” 라고 하였다.³²⁾ 이와 같은 《상서》 〈酒誥〉의 기록은 술에 禮의 질서를 확립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기틀을 정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주가 정치제도를 ‘禮’ 라는 도덕규범의 범주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시경》의 〈雅〉와 〈頌〉 가운데 飲酒詩는 이러한 군주에 속한 士들이 酒德과 酒禮를 제창하는 의식을 보여준다. 〈周頌〉의 「豐年」에서 “풍년 들어 기장이며 벼가 풍성하여, 높다란 창고에는 한없이 많이 쌓여 있네. 술 빚고 단술 걸러 조상들께 바치어 갖가지 예를 다하니, 내리시는 복 아름답기 짝이 없네” 33)라고 하였고, 「載芣」에서도 “풍성한 곡식 거두니 커다란 노적가리가 한없이 많네. 술과 감주 담그어, 조상님께 바치며 모든 예절 갖추어 제사지내네” 34)라고 하였다. 〈小雅〉 가운데 「賓之初筵」에서도 “손님 모여 잔치 시작하니 좌우 모두 질서 있네.”, “여러 조상들 즐겁게 해드리는데, 모든 것이 예에 합당하네.”, “손님 모여 잔치 시작하니 점잖고 공손하네. 취하지 않았을 적엔 위엄과 예의에 조심하더니,

30) 李相玉 譯, 《戰國策》, 545쪽.

31) 金學主 譯著, 《書經》, 342쪽.

32) 주31), 344-345쪽.

33) 金學主 譯著, 《詩經》, 663쪽.

34) 주33), 676쪽.

술 취한 뒤엔 위엄과 예의가 불안해지네.”, “술이 매우 좋다는 것은 오직 예의를 잘 지킬 때일세.”³⁵⁾라고 하여 술자리에서 취하여 예를 잇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였다.

이후로 전국 시대부터 진한을 거쳐 당대에 이르러서는 치국평천하를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사대부들이 도덕수양과 고결한 절개를 함양하는 정신적 태도를 견지하는 풍조로 음주문화에서 방향을 바꾸어 차를 마시며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였다. 차를 마시는 풍습이 생기기 시작한 때는 쑤나라 때부터이다. 황보염·유장경·유우석과 같은 당대 시인들의 시에는 차가 정신을 맑게 해주고 창작을 자극하며 영혼을 정화시켜주며 천지우주와의 융합과 만물의 기능을 응집시켜준다고 하였다. 중당 시기에는 차는 문인생활 가운데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여 차 문화를 형성하였다. 차 문화의 정신은 中庸·和諧·禮義·仁愛·團結 등 사회사상과 도덕관념의 유학적 사상을 흡수하여 天人合一의 자연관을 나타내었다. 차 문화는 또한 도가사상의 情景交融과 物我一致 등의 자연관을 받아들여 皎然의 三碗茶詩나 盧仝의 七碗茶詩는 장자사상의 物我一如, 자연의 순응 정신을 포함한다. 불교사상 역시 차 문화에 영향을 끼치어 차의 맛을 느끼는 적막함과 선적인 정신 그리고 맑은 마음으로 자연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 차를 마시는 사람은 차를 통해 자신과 산수자연과 우주가 하나로 융합되는 깨달음을 느끼며 참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당송 이후에도 이백이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고, 자칭 술에 취한 신선일세”라고 읊기도 하고, 張旭이 술에 취한 후에 관모를 벗어 조정의 황실귀족이나 고관대작들 앞에 내던지거나 吳敬재가 술에 취해 내뱉는 말이 미친 사람 같이 절제하지 못했던 것처럼 술에 취해 예법을 무시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태도를 취한 문인들도 있지만 이것은 술과 예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5) 주33), 491-492쪽.

3. 中國飲食과 政治와의 關係

고대 중국에서 주방장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기도 하였고 낮기도 하였는데, 중국에서 주방장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상나라 때 伊尹은 유명한 요리사로 재상 자리에까지 올랐다. 세상의 모든 일을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과 곧잘 비교했다. 《史記》〈殷本紀〉의 기록에 “이윤의 이름은 阿衡이다. 아형이 湯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방법이 없어 有莘氏의 여자가 시집을 갈 때 데리고 가는 奴僕인 媵臣이 되어 음식을 삶는 도구 鼎과 제물을 담은 俎를 메고 탕에게 갔다. 그는 음식의 맛을 예로 들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탕이 王道를 실행하게 하였다”³⁶⁾고 하여 음식과 정치와의 밀접한 관계를 잘 나타내었다.

老子는 治國을 작은 생선 요리에 비유하여 말하길 “큰 나라를 다스림은 작은 생선을 지지는 것과 같다”³⁷⁾라고 하였다. 생선을 자주 뒤집어서 요리하면 생선이 부서지는 것처럼 통치자는 백성을 빈거롭게 하거나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孟子》〈告子〉편에서 孟子는 “생선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곰 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곁할 수 없다면 생선을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리라.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곁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리라”³⁸⁾라고 말하였다. 그는 삶을 버려서라도 義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적인 음주와 음식에 대한 탐닉과 폐망의 화는 서로 관련이 깊다고 하여 殷·周 시기에 전설상의 흉악하고 탐식하는 야수인 饕餮을 음식을 담는 솥 위에 주조하여 사람들에게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春秋左傳》〈文公〉 18년의 기록에서 유래하였다. 緡雲氏에게 좋지 못한 아들이 있는데, 그는 음식과 재화를 탐내고, 남의 것을 약탈하며, 욕심이 지나치게 많고, 사치를 좋아하여 만족

36) 주29), 55쪽.

37) 治大國, 若烹小鮮.

38) 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邢昺疏, 《十三經注疏》, 201쪽.

할 줄 모르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모아 쌓아 그만둘 줄 모르고, 고아나 과부 같은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궁한 사라들을 도와주지 않으니, 천하 사람들은 그를 도철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³⁹⁾ 이런 飮食과는 달리 보양식을 강조한 경우도 있다. 미식가로 유명한 蘇軾은 〈論管仲〉에서는 “나는 천하를 양생과 같다고 여기는데 나라를 걱정하고 진란을 준비하는 것은 약을 먹는 것과 같다. 양생이란 살면서 음식에 조심하고 가무와 여자를 절제하면 된다. 병이 들기 전에 조심하고 절제하고 병이 든 후에 약을 먹으면 된다. 나는 추위와 질병이 걱정되면 먼저 烏啄을 복용하고, 열병이 걱정되면 먼저 甘遂를 복용하면 된다. 병이 아직 들지 않았는데 먼저 약을 먹으면 죽게 된다”⁴⁰⁾ 하였다. 실제 소식은 음식을 통해 정치의 득실을 논한 것이다. 이렇게 음식과 정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음식과 정치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는 楚와 漢의 결투에서의 鴻門宴이 대표적이다. 司馬遷의 《史記》 권7 〈項羽本紀〉를 보면, 유방을 해치려는 위급한 상황에서 번쾌가 항우를 노려보며 항우가 준 술과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이것은 음식으로 번쾌 자신의 힘과 기백을 적장 항우에게 보여주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난 것이므로 음식은 정치적인 의미를 상징한다. 번쾌는 자신과 유방의 위험한 처지를 음식에 비유하여 항우는 칼과 도마가 되고 자신과 유방은 도마 위의 물고기라고 하였다.⁴¹⁾ 이 역사 고사에는 술과 정치의 밀접한 관계에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술자리를 빌려서 항우가 유방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고, 두 번째는 번쾌가 술과 고기로 목숨을 구한 것이다. 술과 음식은 천하를 얻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연회에서 술과 음식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는 춘추시대 때 吳나라 公子 光이 吳王 僚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술자리에서 음식을 이용하여 왕위를 차지한 사건이다. 《史記》 권86 〈刺客列傳〉에 기록되어 있다. 공자 광의 부친은 吳王 諸樊이다. 제번에게는 아우가 셋이 있는데, 차례로 아우들을 세우려고 하

39) 《春秋左傳》〈文公〉 18년. 주18), 512쪽.

40) 吾以謂爲天下如養生, 憂國備亂如服藥. 養生者, 不過慎起居飲食, 節聲色而已. 節慎在未病之前, 而服藥在已病之後. 今吾憂寒疾而先服烏啄, 憂熱疾而先服甘遂, 則病未作而藥殺人矣. 《蘇軾全集》(中), 744쪽.

41) 丁範 外 畝 錄, 《史記 本紀》, 228-230쪽.

였으나 막내아우 季子札이 즉위하지 않으려고 달아났다. 오나라 사람은 둘째 아우 夷昧의 아들 요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광은 왕의 정치의 장남인 適嗣인 자신이 마땅히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소에 은밀하게 모략에 능한 신하를 길러, 자기가 임금인 되는 길을 모색하였다.

공자 광이 무장한 병사를 지하실에 숨겨두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오왕 요를 초청하였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공자 광은 거짓으로 발이 아픈 척하며, 지하실로 들어가서 자객 전제를 시켜 구운 생선 배속에 비수를 숨겨 올리게 하였다. 오왕 앞에 나아간 전제는 생선을 갈라 그 속의 비수를 꺼내어 오왕 요를 찔러 살해하였다. 매복시켰던 무사들이 오왕 요의 무리를 쳐서 모두 죽인 후에 스스로 즉위하여 왕이 되었다. 공자 광이 바로 闔閭이다. 이 사건은 술자리를 빌려 음식을 이용하여 정권을 탈취한 것인데 음식과 정치와의 밀접한 관계를 잘 알 수 있다.⁴²⁾

1) 포부의 표현

춘추전국시대 때는 제후국 사이에 전쟁이 잦았는데 조정에서 신하가 왕에게 국사에 관한 계책을 건의하는 과정이나 제후에게 식객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천거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쌍방 간에 의견이 충돌되거나 상충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다. 왕이나 食客이 자신의 뜻이나 포부를 신하나 제후에게 전달하기 위해 술과 음식에 비유한 예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예가 있다.

첫째, 《史記》 권97 〈酈生陸賈列傳〉에 酈生 食其는 陳留 高陽 사람으로 독서를 좋아했으나 가난하여 의식을 해결할 만한 직업도 없어 어느 마을의 성문지기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미치광이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보인다. 유방이 패공이 된 후에 진류를 공략한다는 말을 듣고 역생이 패공의 부하 기병에게 패공이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섬기고 싶은 인물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패공에게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패공에 대해 말하길 패공은 거만하고 선비를 업신여긴다고 하

42) 丁範 外 畝 監, 《史記 列傳》(上), 382-384쪽. 京劇 《魚藏劍》의 고사로 희곡화되었음.

였고, 기병도 역생에게 패공에 대해 그는 선비를 좋아하지 않으며 빈객 중에 관을 쓰고 있는 선비가 있으면 그 관을 빼앗아 그 안에 오줌을 싸버리거나 선비와 얘기 할 때도 큰 소리로 욕하곤 한다고 평할 정도로 패공은 선비를 무시하였다. 패공이 한 번은 역생을 불렀는데 그는 다리를 벌리고 침상에 걸터앉아 두 여자에게 발을 씻기고 있었고 그 자세 그대로 역생을 들어오게 할 정도로 선비를 대하는 예의도 갖추지 않았었다.⁴³⁾ 역생은 패공의 사자에게 자신은 고양 땅의 ‘술꾼’ 이지 선비가 아니라고 전하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검을 잡으며 꾸짖자, 사자는 두려워 명함을 떨어뜨렸다가 허리를 굽혀 그 명함을 주워서 패공에게 알렸다. 사자는 역생은 천하의 장사여서 자신을 꾸짖었는데 두려워서 명함을 떨어뜨릴 정도이고 자신이 술꾼이라고 하였다 말하자 패공은 즉시 맨발로 창을 잡고 역생을 불렀다고 기록하였다. 유방의 눈에는 술꾼이 선비보다 천하의 대사를 이루는데 더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며 술로 대화의 문을 열어 것이다. 결국 술꾼 역생의 계책을 유방이 받아들여 역생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비축된 식량이 엄청난 보급 기지이며 성의 수비가 견고한 진류 성을 지키는 현령을 죽이고 투항하는 진류 사람들을 규합하여 군사 수만 명을 이끌고 함곡관에 들어가 진나라를 격파할 수 있었다.⁴⁴⁾ 한고조 유방이 선비들을 싫어하는 것을 역생이 간파하고 술꾼이라고 자처하여 환심을 사고 자신의 뜻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술과 정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漢文帝가 絳侯 周勃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賢能한 周亞夫를 條侯로 봉하여 絳侯의 계승자로 삼았다. 지금의 하남 河内の 군수였다가 漢景帝 때 지위가 上卿 다음가는 車騎將軍에 임명된 주아부는 吳楚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승상으로 승진하였다. 후에 경제가 그와 栗姬 사이의 소생인 栗太子 劉榮을 폐위하려고 하자 승상 주아부가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끝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경제와 주아부는 이 일로 소원해졌다. 후에 또 흉노의 왕 유서로 등 5명이 한나라에 투항

43) 《高祖本紀》에는 역생은 패공 유방이 도량이 크고 관대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그에게 유세하기를 요청하였는데 패공이 역생을 만날 때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패공은 마침 침상에 걸터앉아 두 여자에게 발을 씻게 하고 있었다. 역생은 절을 올리지 않고 두 손을 잡아 높이 들고 허리를 굽히며 진나라를 토벌하려면, 걸터앉은 체로 長者를 접견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자 유방이 일어나 옷을 여미며 사죄하고 상좌에 앉게 하였다고 하였음.

44) 丁範 撰 外 畝 監, 《史記 列傳》(中), 585-587쪽.

하자, 경제는 그들을 후의 작위에 봉하여 이후에 투항할 흉노를 고무시키려고 하였다. 주아부는 흉노 왕이 자신의 군주를 배반하고 투항하였는데 후로 봉한다면 앞으로 절조 없는 신하들을 책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경제는 승상 주아부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서로 등을 列侯에 봉하였다. 이 때문에 주아부는 병을 핑계로 승상의 직무를 免官하였다.

얼마 후에 경제는 궁중에서 條侯 주아부를 접견하고 음식을 내렸다. 그러자 조후의 자리에는 단지 큰 덩어리의 고기 하나만 놓여 있었고, 작게 썬 고기나 젓가락은 놓여 있지 않았다. 주아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고개를 돌려 술자리를 주관하는 관원에게 젓가락을 가져오게 하였다. 경제는 이것을 보고서 웃으며 “이 일은 그대의 뜻과 같지 않소?” 라고 말하였다. 주아부가 술자리 담당 관원에게 음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주아부가 황제의 정치에 대해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일치시켜 주아부를 책망한 것이다. 《사기》 권57 〈絳侯周勃世家〉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아부는 황제가 음식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곧 모자를 벗고 사죄하였다. 황제가 주아부에게 일어나라고 하니 주아부는 빨리⁴⁵⁾ 걸어 나갔다. 경제는 주아부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는 “저 불평 많은 사람은 어린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어린 황제는 태자 劉徹을 지칭한다. 유철은 후에 한나라를 부국강병으로 흥성하게 하여 중국 역사상 위대한 황제 중의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 漢武帝이다. 주아부는 유철을 태자로 세우는 것에 반대하였는데 경제는 주아부가 자신의 후계자의 장래에 이롭지 못할까봐 걱정하였던 것이다. 후에 주아부의 아들이 부친을 위해 황가의 순장용 갑옷과 방패를 구입해주었다. 그것을 옮겨온 사람이 황실용 기물을 몰래 구입하였다는 상서를 올려 주아부의 아들을 고발하고 이 일은 주아부에게까지 연루되었다. 廷尉가 주아부를 문책하여 “당신은 지상에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하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더욱 심하게 심문을 가하였다. 관리가 주아부를 체포할 때 주아부는 자살할 생각이었으나 그의 아내가 저지하였으므로 실패하고 정위의 감옥에 갇혔었다. 주아부는 이 때문

45) 중국어 「快」 와 젓가락을 가리키는 「筷」 는 발음이 같음.

에 5일 동안 단식하다가 결국 굶어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⁴⁶⁾

셋째, 한고조 유방이 서거한 후에 呂太后가 전권을 휘둘러 고조의 “유씨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을 왕에 봉하지 말라”는 유언에 어긋나게 呂氏 일족을 모두 왕으로 봉하였다.⁴⁷⁾ 이것은 여태후가 여씨 일족으로 하여금 나라 전체를 통치하려는 속셈이었다. 《사기》 권52 〈齊悼惠王世家〉에 기록하길, 齊悼惠王 劉肥는 한고조 유방의 장남으로 서자 출신이고 천자인 惠帝의 형이다. 혜제의 아들 劉襄이 즉위하여 哀王이 되자 여태후는 천자의 직무를 대행하여 국사가 모두 태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애왕의 동생 劉章이 입조하여 궁중의 야간 경호를 맡았는데 곧 여후는 그를 朱虛侯에 봉하였다. 일찍이 연회석에서 여후를 모신 적이 있는데, 여후는 유장에게 酒吏를 담당하게 하였다. 주리는 연회석에서 음주 때 흥을 돋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시를 지어 읊조리거나 가무를 하도록 하여 위배하는 사람에게 별주를 마시게 하는 등의 유희를 담당하게 하는 관리였다. 연회에서 자신은 군인 출신이고 군법으로 주리를 담당하게 해달라고 여태후에게 청하고 허락을 받았다. 유장은 耕田歌를 부르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논밭을 깊이 파서 조밀하게 파종하고, 짙은 들팍을 남겨두네. 같은 종자가 아니면, 호미로 파서 뽑아버리네.” 여후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 여씨 집안의 한 사람이 취하여 술자리에서 빠져나오자, 유장은 그를 쫓아가서 칼을 뽑아 베고는, 술자리에서 도망치는 자가 있어, 군법을 집행하여 죽였다고 말했다. 태후와 좌우의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지만 군법에 따라 술을 마시기로 한 이상 유장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었다. 자연히 연회는 끝이 났고 여씨들은 유장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유장을 따르게 되어 유씨의 위엄이 높아졌다고 하였다.⁴⁸⁾ 술자리를 빌려 여씨의 횡포를 막고 한고조 유방의 유언에 따라 유씨의 조정에서의 위세를 드높인 것인데 술과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46) 《史記》 권57 〈絳侯周勃世家〉, 丁範 撰 外 畝 監, 《史記 世家》(下), 593-599쪽.

47) 《史記》 권9 〈呂太后本紀〉, 丁範 撰 外 畝 監, 《史記 本紀》, 308쪽.

48) 丁範 撰 外 畝 監, 《史記 世家》(下), 513-515쪽.

2) 정치 도피

술과 정치와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정치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술의 역할에 대한 예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고조 유방을 보필하여 천하를 평정한 曹參이다. 조참은 재상을 지낸 蕭何在 죽은 후에 그의 재상 자리를 계승하였다. 조참은 자신의 재능이 소하에 못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일체 모든 정치를 소하의 정책대로 시행했는데 이것을 역사에서는 ‘蕭規曹隨’ 라고 일컫는다. 모든 하급 관리가 알현을 원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조참은 술자리를 마련하여 초대하여 술자리에서는 국사를 논하지 않았는데 신하가 진언을 하려고 하면 술을 내오도록 하고 술을 권해서 취하여 말문을 못 열게 하였다. 관리들이 관공서에서 종일 술에 취하자 조참의 측근이 그들을 문책하라고 하였지만 조참은 오히려 술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함께 마셨다. 혜제는 조참이 술만 마시고 나라의 정치를 돌보지 않는 것을 알고는 그를 문책하였다. 조참은 혜제에게 황제가 고조 유방에 견줄 만한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혜제는 자신이 어찌 감히 선왕과 견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조참은 또 혜제에게 자신의 능력이 소하와 비교해서 어떠하냐고 물었다. 혜제는 조참이 소하에 미치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조참은 자신은 소하에 비교가 되지 못하며 고조와 소하가 정한 방침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안심하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자 혜제도 그를 문책할 수가 없었다. 조참 임기 동안에 한나라는 천하가 무사태평하였다.⁴⁹⁾ 술에 취하여 정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黃老學의 無爲而治 정치사상에 의한 정치술책으로 술은 단지 조참 자신의 정치적인 태도와 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술을 핑계로 정치현실로부터의 도피인 것이다.

두 번째, 술을 현실도피 수단으로 삼은 인물은 信陵君이다. 魏나라 公子 無忌는 魏昭王의 막내아들이며, 安釐王의 이복동생이다. 소왕이 죽고 안희왕이 즉위하자, 공자를 봉하여 신릉군이라고 하였다. 공자는 사람됨이 어질고 선비를 존중하였고,

49) 《史記》〈曹相國世家〉. 丁範鎮 外 옮김, 《史記 世家》(下), 546-548쪽.

그 선비가 어질거나 불초하거나 막론하고 모두에게 다 겸손하게 예를 갖추어 그들과 사귀었고, 감히 자신의 부귀함으로 선비들에게 교만하게 대하지 않았다. 때문에 선비들이 사방 몇 천리에서 앞 다투어 신릉군에게 모여드니 식객이 3천 명이나 되었다. 공자가 조나라에 10년 동안 머물며 위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秦나라에서는 공자가 조나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군사를 일으켜 동쪽으로 위나라를 공격하였다. 이에 위왕은 공자를 장군에 임명하였다. 공자가 진나라 군사를 추격하여 함곡관에 이르러 진나라 군사를 억눌러 공자의 위세가 천하를 진동시켰다. 진왕은 째깍의 식객들을 찾아 그들로 하여금 위왕에게 공자를 비방하도록 시켰다. 진비는 후영이라는 신릉군의 식객이 왕의 총애 여회를 시켜 진비의 병부를 흠치게 하는 계책을 내놓아 그 병부로 진의 군사를 속여 빼앗아 조나라를 보존하게 하였는데 한편 후영의 친구 주해의 첩퇴에 맞아 죽은 진나라 장수이다. 진비의 식객이 공자가 남면하면서 왕이 되려고 한다고 위왕과 공자 사이를 이간질하였다. 날마다 비방을 들은 위왕은 공자 대신 다른 사람을 장군에 임명하였다. 공자도 자신이 비방으로 인해서 다시 쫓겨나자, 이에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고, 빈객들과 밤새도록 술자리를 벌여 독한 술을 마시며 많은 여자들을 가까이하였다. 밤낮으로 즐기고 마시기를 4년, 마침내 신릉군은 술 때문에 병이 들어 죽었다.⁵⁰⁾ 남의 비방으로 결국 신임을 잃고 정치 풍랑에서 도피하기 위해 술을 너무 마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정치알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술과 정치와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세 번째, 술과 정치도피와의 밀접한 관계는 위진 시대 때의 竹林七賢 가운데 阮籍의 행적에도 잘 나타나 있다. 죽림칠현 가운데 가장 걸출한 인물은 완적과 혜강이다.⁵¹⁾ 당시는 사마씨가 조위 정권을 찬탈하려는 정치투쟁의 험악한 시대로 혜강은 이러한 정치배경 하에서 사마씨의 모함에 의해 살해당하였지만 이와는 달리 완적은 오히려 술로 정치현실을 도피하여 몸을 보전할 수 있었다. 완적의 음주 행위는 순수한 정치적인 압박에 대항하는 자각적인 행동이었다. 《晉史》와 《世說新

50) 《史記》 권77 《魏公子列傳》, 丁範 外 옮김, 《史記列傳》(上), 243-252쪽.

51) 竹林七賢과 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世說新語》 〈任誕〉 편에 보임. 金長煥 譯註, 《世說新語》(下), 185쪽.

語》속에 그에 관한 수많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 모친상 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고⁵²⁾, 동네 술집 여자 옆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았으며⁵³⁾, 보병 이문의 주방에 좋은 술이 많았기 때문에 步兵校尉라는 관직을 얻었다⁵⁴⁾는 등이다. 완적의 명성이 높아 사마씨가 그를 끌어들이려고 하여 완적은 단지 늘 술에 취하여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도 말하지 않아 꺾박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 하루는 司馬昭가 완적과 혼인관계를 맺으려고 하자 완적은 두 달 동안 매일 계속해서 술을 마셔 상대방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였고 그래서 완적은 정치 소용돌이의 와중에 말려 들지 않고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었다.

이밖에 술로 정치 압박으로부터 피신하였던 완적처럼 술에 취한 척 위장하여 화를 면한 예로는 동진시대 때 王允之가 대표적이다. 또한 술에 취한 위장술로 反間計를 사용한 예는 《三國演義》에 보인다. 소설 가운데 周瑜가 술에 취한 척 위장하고 고의로 蔣干이 蔡瑁와 張允의 가짜로 항복하는 편지를 보게 하고 조조의 두 유능한 수군의 명장을 처단할 수 있었다.⁵⁵⁾ 이것은 京劇 《群英會》로 희곡화되어 세상에 유명해졌다.

술이 정치적인 효력을 가장 강력하게 발휘된 예는 송태조 趙匡胤의 ‘杯酒釋兵權’이다. 송나라를 건립한 후에 병권을 쥐고 있는 石守信과 王審琦 등의 장수를 궁정 연회에 초대하여 술이 석 잔 돌자 조광윤은 자신이 장수들 덕분에 제위에 오르게 되어 장수들의 공을 잊을 수가 없지만 장수들 가운데 장수들의 부하가 자신처럼 黃袍를 장수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고 황제로 삼을까 항상 불안하다고 하자 장수들은 병을 핑계로 병권을 조광윤에게 넘겨주었다. 송태조 조광윤은 장수들에게 큰상을 내리고 변진의 반란을 근원적으로 막아내어 당·오대 이후 중국은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술은 정말 신묘한 힘을 발휘하여 중앙집권을 추진하고 국가의 사회 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하여준 강력한 정치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술과 정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52) 주51), 185쪽, 194쪽.

53) 주51), 191쪽.

54) 주51), 189쪽.

55) 45회. 「삼강 어귀에서 조조는 군사를 크게 잃고, 군영회에서 장간은 계략에 말려들다(三江口 曹操折兵, 群英會蔣干中計)」.

4. 中國飲食과 文藝創作과의 관계

중국의 음식문화는 중국문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술, 음식, 차와 관련된 시, 소설, 희곡은 무수히 많다. 그 가운데 술과 문학은 다른 차나 음식과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여 이 둘의 상호관련은 중국 酒文化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술을 주제로 삼은 詩文은 셀 수 없이 많다.⁵⁶⁾

1) 중국음식과 중국문학과의 관계

중국음식과 중국문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중국문학의 수많은 작품은 음주를 제재로 삼았다. 술과 문학 양자 간의 관계를 통해 중국 음식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역대 飲酒詩들을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慶祝. 劉禹錫의 〈壯士行〉에서는 周處가 호랑이를 죽여 호랑이의 폐해를 소멸한 공적을 술로 축하하였다. “음산한 바람이 추운 교외에 나부낄 때, 사나운

56) 술에 관한 文賦로는 西漢 때 楊雄의 〈酒賦〉, 建安시대 王粲의 〈酒賦〉, 曹操의 〈酒賦〉, 劉伶의 〈酒德頌〉, 南朝 梁나라 때 江總의 〈勞酒歌〉, 唐나라 때는 王績의 〈醉鄉記〉와 〈酒褊〉, 白居易의 〈酒功贊〉과 〈醉吟先生傳〉, 육구몽의 〈中酒賦〉, 皮日休의 〈酒箴〉, 송나라 때는 소식의 〈獨酌有妙理賦〉와 〈酒子賦〉, 〈洞庭春色賦〉 등이 있다. 시사로는 漢樂府 가운데 〈醉吟曲辭〉 〈將進酒〉, 〈西廂樂歌〉 〈上壽酒歌〉, 〈橫吹曲辭〉 〈高陽樂人歌〉, 〈清商曲辭〉 〈宴酒篇〉, 〈雜曲歌辭〉 〈飲酒樂〉과 〈前有一樽酒行〉이 있다. 시로는 魏晉 때 嵇康의 〈酒會詩〉 7章, 陶淵明의 〈飲酒〉 20수·〈連雨獨飲〉·〈止酒〉·〈述酒〉, 南朝 梁나라 때 范雲의 〈當對酒〉와 〈對酒〉, 庾信의 〈對酒歌〉 등의 飲酒詩 14수가 있다. 唐代에는 飲酒詩도 무수히 많은데 왕적, 이교, 저광희, 고적, 위응물, 이백, 두보, 가지, 대숙륜, 한유, 유종원, 맹교, 원진, 백거이, 이하, 육구몽, 피일휴 등 20여 시인이 있다. 송대에는 술을 주제로 소순음, 소식, 소철, 황정건 등이 시를 지었고 술을 읊은 사로는 구양수의 〈采桑子〉(「畫船載酒西湖好」) 등 13수 가운데 8수와 〈定風波〉(「把酒花前欲問他」)·〈浣溪沙〉(「十載相逢酒一卮」) 등 다수가 있으며 소식의 〈蝶戀花〉(「別酒勸君一醉」) 10여수, 황정건의 〈江西月〉(「醉落魄」) 등 4수가 있음.

호랑이 포효하고 있었네. 장사는 말을 타고 달려가, 등불 앞에서 옥 장식한 활을 당겼네. 고향 처 사람처럼 서게 하더니, 단발에 긴 창 던져 명중시켰네. 마을에서는 해로운 짐승 없었다고 기뻐하며, 축하주 내고 마구 환성을 질렀네.” 57) 杜甫의 〈聞官軍收復河南河北〉에서는 安祿山の 亂이 평정된 후의 장안 수복을 술로 경축하였다. “검각 밖에 문득 계북 수복을 전하니, 처음 듣고 눈물이 옷에 가득 적시네. 대낮에 노래하며 마냥 술 마시고, 봄을 벗 삼아 고이 고향 돌아가리라.” 58)

둘째, 招待. 曹丕의 〈秋胡行〉에서 손님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푸는 술자리를 표현하였다. “아침에 가인과 만날 약속했는데, 저녁이 되어도 오질 않네. 좋은 음식 맛보지도 못하고, 맛있는 술은 술잔도 들지 못했네.” 59)

셋째, 離別. 王維의 〈送元二使安西〉는 친구와의 이별의 슬픔을 술로 나타내었다. “위성의 아침 비 가벼이 날리는 티끌 적시고, 객사의 파란 버들엔 봄이 왔구나. 그대에게 권하노니 다시 한 잔 술을 마시세, 이제 서쪽으로 양관 나서면 친구 다시는 없으리라.” 60) 李白의 〈金陵酒肆留別〉에서는 석별의 정을 음주로 표현하였다. “봄바람에 버들가지 가벼이 날리고 수집에 꽃향기 가득하고, 오 땅의 여자 맛있는 술 가져와 손님에게 맛보게 하네. 금릉의 친구들 나를 전송하는데, 서로 떠나질 못해 각자 술을 마시네.” 61)

넷째, 相逢. 崔參의 〈涼州館中與諸判官夜集〉은 하서절도사 고선지를 따라 안서에 갔다가 양주로 되돌아와 다시 관관들을 만나 기뻐서 음주의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하서의 군막에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별한 지 사오년은 되었네. 화문루 앞에는 가을 풀들 자랐고, 가난해도 어찌 늙어서 볼 수 있으랴. 한 평생 크게 웃을 날이 며칠이나 되나, 술 기울이며 서로 만났으니 취해보세.” 62) 杜甫의 〈贈衛八處

57) 陰風振寒郊, 猛虎正咆哮. 壯士走馬去, 鑿前彎玉弰. 叱之使人立, 一發如皸交. 里中欣害除, 賀酒紛呶號. 《全唐詩》, 3964쪽. 관련 시구만을 발췌하였음. 이하 동일함.

58) 劍外忽傳收蓟北, 初聞涕淚滿衣裳. 白日放歌須縱酒, 青春作伴好還鄉. 主57), 2460쪽.

59) 朝與佳人期, 日夕殊不來. 嘉肴不嘗, 旨酒停杯. 余冠英 編選, 《曹操曹丕曹植詩選》, 11쪽.

60) 渭城朝雨邑輕塵, 客舍青青楊柳春. 觀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主1), 1307쪽. 《全唐詩》 판본에는 이 시를 「渭城曲」이라고 하였음.

61) 風吹柳花滿店香, 吳姬壓酒喚客嘗. 金陵子弟來相送, 欲行不行各盡觴. 請君試問東流水, 主57), 1784쪽.

62) 河西幕中多故人, 故人別來三五春. 花門樓前見秋草, 豈能貧賤相看老. 一生大笑能幾迴, 斗酒相逢須醉倒. 主57), 2055쪽.

士)는 두보가 낙양에서 華州로 돌아오는 도중에 處士 衛氏 집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옛 친구 찾아가면 반이나 귀신 되어, 놀라와 부르짖다가 창자가 찢어진다. 어찌 알았으리? 이십 년 만에 또다시 그대 집을 찾아올 줄을. 주고받는 인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녀자 시켜 술상을 차렸구나. 주인이 말하길 만나기 어렵다고, 잔 들어 한꺼번에 열 잔이나 마시네.” 63)

다섯째, 放浪. 杜牧의 〈遣懷〉에서는 양주에서 10년 동안 방랑했던 나그네 생활을 회고하며 마음을 달래며 인생무상을 노래하였다. “불우하여 강남에 술을 신고 떠돌았고, 손바닥에 찌푸는 허리 가는 아가씨에 간장이 끊어지네. 십 년 만에 양주의 꿈 깨어났더니, 박정하디는 명성만 화류계에 남겼네.” 64) 또한 이백은 〈客中行〉에서 잠시 호탕하게 술에 취해 고향 생각을 망각하였다. “난릉의 맛있는 술 울금향 풍기고, 옥잔에 채우니 호박 빛이네. 주인이 나그네 취하게 할 수 있다면, 타향살이 어디면 어떠하리오.” 65)

여섯째, 그리움. 李商隱은 〈七月二十九日崇讓宅燕作〉에서 가을이 되어 술을 마시고 부인을 그리워하였다. “오랫동안 고향의 아내 꿈 깨니 등불만 보이고, 이론 것 하나 없는 헛된 삶속에 술만이 벗이 되었네. 어찌 이렇게 머리만 희어졌나? 송산 남쪽 소나무의 눈만이 나를 알아주네.” 66) 李白은 술을 마시며 〈對酒憶賀監〉을 지어 장안의 궁에서 자신에게 謫仙人이라는 호칭을 주었던 賀知章을 그리워하였다. “생전에 술 마시기를 좋아했거늘, 이제는 소나무 밑 흙이 되었네. 금 거북 팔아 술 함께 마시던 추억에, 혼자 눈물 쏟아 수선을 적시네.” 67)

일곱째, 슬픔. 曹操의 〈短歌行〉에서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아 세월의 빠름을 한탄하며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읊었다.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네, 인생은 얼마나 긴가? 아침 이슬과 같고, 과거는 괴로운 날 많았네. 슬퍼서 탄식하니, 시름을 잊을 길 없네. 어찌하면 근심을 잊을까? 오직 두강주뿐이네.” 68) 陸游는

63) 訪舊半爲鬼，驚呼熱中腸。焉知二十載，重上君子堂。問答乃未已，兒女羅酒漿。主稱會面難，一舉累十觴。 主57) 2257쪽.

64) 落魄江南載酒行，楚腰腸斷掌中輕。十年一覺揚州夢，贏得青樓薄倖名。 主57) 5998쪽.

65) 蘭陵美酒鬱金香，玉碗盛來琥珀光。但使主人能醉客，不知何處是他鄉。 主57) 1842쪽.

66) 悠揚歸夢惟燈見，曠落生涯獨酒知。豈到白頭長只爾，嵩陽松雪有心期。 主57) 6197쪽.

67) 昔好杯中物，翻爲松下塵。金龜換酒處，卻憶淚霑巾。 主57) 1859쪽.

68) 對酒當歌，人生幾何。譬如朝露，去日苦多。慨當以慷，憂思難忘。何以解憂，唯有杜康。 主59) 5쪽.

〈對酒歎〉에서 웅대한 포부를 지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머리만 희어졌다고 하면서 술로 근심과 슬픔을 잊으려는 심정을 노래하였다. “거울은 비록 밝으나, 추한 얼굴을 예쁘게는 할 수 없네. 술이 비록 맛좋으나 슬퍼하는 자를 기쁘게는 할 수 없네. 술에 취해 뜻을 얻지 못하고, 맑게 읊조리고 길게 탄식하니 쇠와 돌이 깨어지네. 곡이 끝나자 주위 사람들 모두 슬퍼하고, 모두들 눈물을 흘리니 물결이 말이 아니네” 69)

여덟째, 歡樂. 李白은 〈月下獨酌〉에서 음주로 자연과 합일되는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꽃 속에 술 단지 마주 놓고, 짝 없이 홀로 술 마시네. 술잔을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니, 달과 나와 그림자 셋이어라. 내가 노래하면 달님은 서성대고, 내가 춤추면 그림자 흔들대네. 술 깨어 함께 어울려 놀고, 술 취해서는 각자 흩어지네.” 70) 그림자 陶淵明도 〈移居〉에서 명절날 사람들과 함께 음주의 즐거움을 읊었다. “봄가을에는 좋은 날 많아, 높은 데에 올라 새로운 시 짓는다네. 문 앞 지나가면 서로 불러, 술이 있으면 따라 함께 마시네.” 71)

아홉째, 탈속. 이백은 〈下終南山過斛斯山人宿置酒〉에서 終南山을 내려오는 길에 은자 斛斯의 집에 묵으며 속세를 떠난 산속에서의 즐거움을 술로 노래하였다. “푸른 대숲의 조용한 길을 들어서니, 넝쿨이 옷자락을 당긴다. 편히 쉬며 즐거운 얘기 나누고, 함께 잘 익은 술을 따라 마신다. 나는 취하고 그대 또한 즐거우니, 모두 다 몽롱하여 속세를 잊었노라.” 72) 또한 陶淵明은 〈連雨獨酌〉에서 연일 내리는 비에 홀로 술을 마시며 술로 속세를 떠나 신선이 되고픈 심정을 읊었다. “세상에 적송자와 왕자교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정녕 어느 곳에 있는가. 아는 노인이 나에게 술을 주며, 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말한다.” 73) 또 〈飲酒〉에서 음주를 통해 가을에 느껴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다. “가을 국화 자태가 아름다워, 이슬

69) 鏡雖明, 不能使醜者妍. 酒雖美, 不能使悲者樂. 半酣秋不自得, 清嘯長歌裂金石. 曲終四座慘悲風, 人人掩淚無人色. 游國恩·李易 選注, 《陸游詩選》, 37쪽.

70) 花間一壺酒, 獨酌無相親. 舉杯不邀明月, 對影成三人. 我歌月徘徊, 我舞影零亂. 醉時同交歡, 醉後各分散. 주57), 1853쪽.

71) 春秋多佳日, 登高賦新詩. 過門更相呼, 有酒斟酌之. 이치우 역주, 《도연명 전집》, 96쪽.

72) 綠竹入幽徑, 青蘿拂行衣. 歡言得所憩, 美酒聊共揮. 我醉君復樂, 陶然共忘機. 주57) 1825쪽.

73) 世間有松喬, 於今定何間. 故老贈余酒, 乃言飲得仙. 주71), 94쪽.

에 젖은 꽃을 따누나. 근심 잊게 하는 이 술에 띄워 마시니, 세속 잊은 이내 마음 더욱 멀어지네.” 74)

시 이외에 《世說新語》·《三國演義》·《水滸傳》·《金瓶梅詞話》·《紅樓夢》·《儒林外史》와 《西廂記》 같은 중국 소설과 희곡에도 음식과 관련된 작품이 많이 있고, 서예와 회화에도 중요한 제재 중의 하나였다. 《金瓶梅詞話》는 명대 사회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소설로 서문경 일가의 사치스러운 연회에서 당시의 음식 풍속을 알 수 있다. 22회에서는 서문경 일가의 일상 음식생활의 면모를 살필 수 있고, 43회 등에서는 죽엽청, 국화주 등 다양한 술이 소개되고 있으며, 55회에서 서문경이 채경의 관저로 초대받아 제비집 요리와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먹는 장면이 있다. 또한 요리의 조리방법도 열거하고 있는데 螃蟹鮮(61회)과 鷄尖湯(94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1회에서 무대의 부인 반금련이 음탕한 색정을 품고 시동생 무송을 술로 유혹하였고, 2회에서 서문경은 반금련 집 근처 찻집 노파에게 중매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한다. 75) 3회에서는 “차는 풍류를 조성하고, 술은 색을 중매한다고 한다” 는 대목이 나오고, 서문경과 반금련이 서로 만나 술을 마신다. 4회에서는 서문경과 반금련이 술 《紅樓夢》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은 제7회, 제11회, 제40회, 41회, 53회, 63회 등에 있다. 줄거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삽입되어 술을 마시고, 차를 마시며, 음식을 먹는 등의 장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榮國府와 寧府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제41회에서 왕희봉의 심혈을 쏟아 만드는 가지 요리 방법이나 과자, 밀가루를 반죽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튀긴 과자에 정신이 팔린 유 노파가 가위로 종이를 오려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剪紙라는 공예 기술이라도 이토록 묘하게는 만들지 못할 것이

74) 秋菊有佳色, 裊露擗其英, 汎此忘憂物, 遠我遺世情. 주73) 166쪽.

75) 서문경과 찻집 노파가 만났을 때, 노파는 서문경에게 梅湯을 내놓는데, 이 梅湯은 梅實과 얼음 사탕을 섞어 만든 여름의 차인데, 이 梅는 媒와 통하니, 여자를 中媒한다는 뜻을 지녔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할멈, 이 매탕은 아주 좋군요. 댁에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중매를 서왔기 때문에 늘 집에 준비해 두고 있죠.” “매탕을 물었는데 중매는 왜 꺼내십니까?” “중매를 잘 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나는 중매 얘기를 하신 줄 알았죠.” 또 “나리, 和合湯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이 화합탕은 혼례 때 화합신에게 바치는 술로 서문경과 반금련을 화합시키는 데 비유한 말이다. 조성출 옮김, 《금병매》, 65-66쪽. 매탕과 화합탕을 통해 남녀의 사랑과 관련된 애정을 암시하였음.

라고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젊은 여승 妙玉이 老君眉 차를 끓여서 대부인에게 올리는 장면이 있다. “지난해에 받아 두었던 天水 빗물예요.” 라는 기록을 보면 차를 끓이는데 1년 전의 빗물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묘옥이 임대옥에게 끓여준 차에 사용된 물에 대해서는 “5년 전에 玄墓山의 蟠香寺에 있을 때에 매화 꽃에 내려앉은 눈을 모아서 청자 꽃무늬항아리에 담아 두었던 것이며 늘 아까워 먹지 않고 땅에다 묻어 두었던 것인데 올 여름에 처음 꺼내서 한번 먹어 봤으며 오늘이 두 번째라고 하였다. 차 마시는 데 엄청난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元代 王實甫의 《西廂記》의 4折은 장군서와 최영앵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맺게 되고 난 후에 張生이 과거에 응시하러 서울로 떠나가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 송별 잔치의 장면을 묘사한 제3절 〈長亭送別〉을 보면, 성대한 饌別宴에서 이별의 술을 마시며 가슴에 사무치는 이별의 슬픔을 애끓게 묘사하였다. “높푸른 하늘, 누런 국화 핀 땅에, 가을바람은 빠르고, 기러기 남으로 나네. 새벽녘 서리 내린 숲 누가 취한 듯 물들었는가? 모두 이별하는 사람의 피눈물이라네.” 76) 기러기는 이별을 상징하고, 가을 단풍의 빨간색은 이별의 슬픔을 증가시켜준다. 또 “너무나 빨리 권하니, 대면은 짧게 하고, 이별은 빨리 하라 하네. 모녀가 함께 하는 술자리만 아니라면, 님에게 기꺼이 거안제미(擧案齊眉)하련만, 설사 짧은 시간 자리하는 것인들, 부부가 겸상함이 합당하거늘. 공연히 눈짓만 주고받고, 내심 온갖 생각 일어나니, 나는 망부석 진배없네.” “내미는 술과 음식, 흥과 진흥 맛이라” 77) ‘거안제미’란 눈썹 높이까지 밥상을 들어 받드는 예를 말하는데 삼가 남편을 섬기는 예절을 가리키어 남편과의 이별의 슬픔을 강화시켜주는 표현이다. 술과 음식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2) 술과 문예창작과의 관계

중국의 술과 중국문학의 창작과의 관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술

76) 양희석 옮김, 《서상기》, 202쪽.

77) 주76), 206쪽.

에 대한 예찬이고 둘째는 술의 문학창작에 있어서 문학가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술을 예찬한 경우를 살펴보면, 조조가 禁酒를 주장하였을 때 孔融은 술이 德이 된 지 오래되었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나라를 구제하였다고 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논증하였으며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술에 대한 칭송이다.⁷⁸⁾ 劉伶은 〈酒德頌〉에서 술은 사람의 화를 진정시키고 세상의 시비를 초월할 수 있다고 칭송을 하였다. “술에 흠뻑 취하여 누우면, 아무 생각도 없고 근심도 없으며 오로지 즐거움만이 무르익는다.” “이 세상 온갖 사물의 갖가지 뒤섞여 어지러운 모양을 굽어보기를 마치 양자강과 한수 물 위에 떠다니는 개구리밥 정도로 여기고, 예법을 들고 나와 눈을 부라리며 나무라던 유학자들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마치 나나니벌과 푸른 나방 나비의 유충처럼 볼 뿐이다.”⁷⁹⁾

杜甫는 당현종 天寶 5년부터 14년까지(746-755) 10년을 장안에 머물렀는데, 출사의 실패로 실의에 빠졌을 때 〈飲中八仙歌〉를 지었다. 이 시속에 두보는 하지장, 이진, 이적지, 최종지, 소진과 더불어 호탕한 성격과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지 못한 울분을 토로한 이백을 묘사하였다.

이백은 한 말의 술로 백 수의 시를 지었고
장안의 술집에서 잠을 잤다.
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았고
자칭 술에 취한 신선이라 하였다.
장옥은 술 세 잔으로 초서의 으뜸이었고
관을 벗어 맨 머리로 왕궁 앞에 섰다.
붓을 종이 위에 놀리는 것이 구름 같았다.⁸⁰⁾

시에서 언급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술을 좋아하고, 술은 불만과 실의를

78) 《後漢書》 권100 〈孔融傳〉, 中華書局, 2273-2276쪽.

79) 藏勵庵 選註, 《漢魏六朝文》, 216-217쪽.

80) 李白一斗詩百篇, 長安市上酒家眠, 天子呼來不上船, 自稱臣是酒中仙. 張旭三杯草聖傳, 脫帽落紙如雲烟. 주57), 2259-2260쪽.

나타내는 상징어이다. 그런데 이백과 장옥 두 사람의 천자와 왕공이 상징하는 절대 권력자와 권세가를 이렇듯하지 않는 호방한 성격을 드러내면서, 이백의 경우는 술과 시 창작, 초서체로 당시에 유명했던 서예가 장옥의 경우는 술과 서예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결국 술과 문학 창작이나 예술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술이 문학과 예술 창작에 밀접한 작용과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가리킨다.

술이 문학과 예술 창작에 촉매역할을 하였다는 기록은 蘇軾의 〈和陶飲酒〉 시에 보인다. “만물의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다가, 술을 마시면 시는 저절로 지어진다” 81)는 시구는 외적사물과 시인 내면의 정서 가운데 여러 생각에 잠기다가 술을 마시면 바로 시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는 〈洞庭春色〉에서 술을 시를 낚는 낚시 바늘이라는 뜻의 ‘釣詩鉤’ 라고 불렀다. “마땅히 조시구라고 불러야 되나, 또한 시름을 없애주는 빗자루라고도 할 수 있다” 82)라고 하였다. 시름을 없애주는 빗자루라는 뜻의 ‘掃愁帚’ 인 동시에 술은 문학 창작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문인들은 술을 좋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매개로 수많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백은 醉聖, 하지장, 왕진 등은 酒中八仙, 백거이는 醉尹, 피일휴는 醉士, 왕적은 斗酒學士라고 불렸다. 이들의 작품들은 음주 후에 창작되어진 것들이며 예술에 있어서도 王羲之·張旭·懷素·傅山·米芾 등의 서예와 회화 작품은 음주 후에 지어졌다. 음주는 문학과 예술의 창작 영감과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였다.

5. 맺음말

중국의 음식문화는 중국문화의 핵심이다. 중국 음식문화의 내재적 의미는 중

81) 俯仰各有態, 得酒詩自成. 《蘇軾全集》(上), 431쪽.

82) 應呼釣詩鉤, 亦號掃愁帚. 주81), 423쪽. 蒲松齡의 《聊齋志異》 〈八大王〉에서 “술의 명칭이 가장 많은데, 釣詩鉤, 혹은 掃愁帚라고도 한다” 라고 하였음.

국의 고전문헌과 문학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중국의 음식문화는 고대 중국의 禮義, 政治 그리고 文學作品 및 文人들의 창작활동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러한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중국의 음식문화의 내재적 의미를 밝힐 수 있었다.

고대 중국에서 음식은 제사에 바치는 의식행위로 禮義와 깊은 관계를 맺었고, 그러한 예의를 중시하는 음식문화가 발전하여 음식을 통한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정치적인 의미를 띄기 시작하면서 음식은 政治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음식은 중국문학 창작에 풍부한 소재를 제공하였고 반면에 중국문학은 음식 발전을 촉진하였다. 중국의 역대 문학작품은 음식을 제재로 삼아 일부 명작 가운데 기록된 음식은 중국음식문화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중국 음식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과 서예 및 회화작품이 상당히 많다. 중국음식 특히 술은 문인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자극제 역할을 하여 창작에 촉매작용을 하였다.

〈參考文獻〉

- 《尚書》, 《十三經注疏》, 臺北: 藝文印書館.
 《周禮》, 《十三經注疏》, 臺北: 藝文印書館.
 《禮記》, 《十三經注疏》, 臺北: 藝文印書館.
 《儀禮》, 《十三經注疏》, 臺北: 藝文印書館.
 文璇奎 譯著, 《春秋左氏傳》, 明文堂, 1985.
 김학주 옮김, 《순자》, 을유문화사, 2001.
 戴德, 박양숙 解譯, 《大戴禮》, 자유문고, 1996.
 朱熹 集註, 《詩集傳》, 北京: 中華書局, 1983.
 《經書》, 大同文化研究院, 成均館大學校, 1982.
 徐震堉, 《世說新語校箋》, 北京: 中華書局, 1987.
 葛洪, 昔原台 譯註, 《포박자》, 서림문화사, 1995.
 사마천, 《史記》, 臺北: 新陸書局, 1968.

- 房玄齡 等,《晉書》,北京:中華書局,1974.
- 劉煦 撰,《舊唐書》,北京:中華書局,1985.
- 歐陽修,宋祁 撰,《新唐書》,北京:中華書局,1985.
- 王定保 撰,姜漢椿 校注,《唐摭言校注》,上海: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2003.
- 洪興祖,《楚辭補注》,臺北:長安出版社,1984.
- 郭茂倩 편찬,《樂府詩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8.
- 臧勵齋 選註,《漢魏六朝文》,臺北:商務印書館,1961.
- 余冠英 選註,《漢魏六朝詩選》,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9.
- 林貞愛 校注,《揚雄集校注》,成都:四川大學出版社,2001.
- 北京大學 選注,《魏晉南北朝文學史參考資料》,北京:中華書局,1978.
- 《曹操集譯注》,北京:中華書局,1979.
- 楊勇,《陶淵明集校箋》,臺北:成偉出版社,1975.
- 趙劍敏,《竹林七賢》,北京:學林出版社,2000.
- 郭光 校注,《阮籍集校注》,鄭州:中州古籍出版社,1991.
- 王瑤,《中古文學史論》,臺北:長安出版社,1975.
- 何滿子,《中古文人風采》,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7.
- 段成式 撰,《酉陽雜俎》,臺北:源流出版社,1983.
- 孟元老 撰,鄧之誠 注,《東京夢華錄注》,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1984.
- 李漁 著,江巨榮·盧壽榮 校注,《閑情偶寄》,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
- 《蘇軾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
- 羅貫中,《三國演義》,臺北:文化圖書公司,1975.
- 《金瓶梅詞話》,臺北:大元文化事業公司.
- 소소생 지음, 조성을 옮김, 《金瓶梅》, 삼성출판사, 1994.
- 조설근 고악 지음, 안의운 김광렬 옮김, 《紅樓夢》, 삼성출판사, 1994.
- 曹雪芹 撰,饒彬 校訂,《紅樓夢》,臺北:三民書局,1982.
- 王實甫,《西廂記》(董王合刊本),臺北:里仁書局,1981.
- 《全唐詩》,北京:中華書局,1992.
- 應劭 撰,吳樹平 校釋,《風俗通義校釋》,天津:天津古籍出版社,1988.
- 秦永洲,《中國社會風俗史》,濟南:山東人民出版社,2001.
- 張亮采 編,《中國風俗史》,北京:商務印書館,1984.

- 田曉娜 主編,《食典》,北京:中國戲劇出版社,2000.
- 任百尊 主編,《中國食經》,上海:上海文化出版社,2001.
- 王明德·王子輝,《中國古代飲食》,西安:陝西人民出版社,1988.
- 林乃燊,《中國古代飲食文化》,北京:商務印書館,1997.
- 萬國光 編著,《中國的酒》,北京:人民出版社,1986.
- 郭泮溪,《中國飲酒習俗》,西安:陝西人民出版社,1989.
- 陳詔,《中國饌食文化》,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
- 朱寶鏞·章克昌 主編,《中國酒經》,上海:上海文化出版社,2000.
- 胡山源 編,《古今酒事》,上海:上海書店,1992.
- 馬大品 選注,《歷代贈別詩選》,北京:書目文獻出版社,1991.
- 黃志根 主編,《中國茶文化》,杭州:浙江大學出版社,2002.
- 胡德榮 張仁慶 錢鋒 戚雲龍 編,《金瓶梅飲食譜》,북경:經濟日報出版社,1995.
- 蘇衍麗,《紅樓美食》,臺北:時報文化出版公司,2004.
- 《魯迅文集IV》,竹內好 譯註,한무희 옮김, 일월서각, 1986.
- 박은경, “중국음식의 역사적 의미”, 한국문화인류학회편, 《한국문화인류학》, 제24집, 1994.
- 김광억, “상상이 경쟁하는 공간: 한국에서의 중국음식”,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1998.
- 이재영의 《중국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지영사, 1999.
- 주영하의 《중국, 중국인, 중국음식》, 책세상, 2000.
- 시노다 오사무(篠田 統), 《中國食物史》, 동경, 紫田書店, 1974; 《중국음식문화사》, 민음사, 1995.
- K. C. Chang(ed.), Food in Chinese Culture, New York: The Vail-Ballou Press, 1977.

〈中文提要〉

中國飲食文化涉及飲與食兩個方面。“飲”主要指分別代表酒和茶,“食”則是以五穀爲主食,蔬菜、肉類爲副食的傳統飲食結構,包括民情風俗、烹調技術、飲食禮儀等諸般中國文化,及有關人物軼聞、文獻典籍、歷史掌故等諸多方面的知識。中國飲食文化是中國文化的核心,將

飲食文化可納入文化學或文化人類學的研究範圍內進行深入的探索。中國飲食文化就是一種具有內在的文化意義和結構的文化行態。

“民以食為天”的古代中國裏，飲食作為獨立的文化系統，不僅以其生理性刺激滿足了人文的口腹之欲，而且於禮儀、政治、審美諸層面都有所寢漬、滲透，並參與鑄造了封建士大夫、知識分子如詩人和藝術家如畫家、書法家的獨特靈魂，在中國文化心理結構上留下了深深的印記。

西周初年，朝廷制訂了一整套旨在確定君臣、父子、兄弟的等級和區別親疏、尊卑、貴賤的禮儀制度。這一制度也體現在飲食生活中，所以規定了不同身分的人所享用飲食的差別。

先秦時期在社會生活中對酒則從嚴禁到以節制為主，原因在於統治者皆沉湎於酒而導致亡國，所以統治者和思想家主張用道德規範來使得禮儀由政治制度向倫理道德範疇轉化，即唱導酒德禮儀。

在封建專制統治下，醉酒曾經是有詩人特殊的政治反抗手段。因為他們在酒興中尋求的，主要內在心理的平衡，個體感情的渲泄。可以說，這是一種更深刻意義上的政治抗爭。

在古人心目中積定為一種邏輯模式：飲酒必須賦詩。不論是群飲行令，還是自酌獨酌，詩情都應該是酒興的必然產物。能酒擅詩，成為詩人炫耀才情藻思、標榜風度情趣的高行雅事。飲酒也詩人情感的藝術表達；即詩歌創作，找到了靈感的獨特觸媒，想像的奇妙載體。

關鍵語：中國飲食文化 內在的意味 飲食 酒 禮儀 政治 文學創作 觸媒 想像力 藝術